

#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인생 2막’ 열었어요”

공무원 퇴직후 화장품 업계 도전 ‘제이엘비’ 장상근 대표

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뒤 자연주의 화장품 회사 대표로 ‘인생 2막’을 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자연주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주)제이엘비 대표로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상근 대표가 주인공이다.



장 대표는 순천시를 거쳐 광주시 국장,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등을 지내며 40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2년 전 화장품 업계에 도전장을 냈다. 심한 건성 피부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직접 찾아가 하면, 틈틈이 천연 화장품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자본금 2억원으로 ‘겉없어’ ‘피어 들었다. 물론, 독일 프라운호퍼의 천연효소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보습력과 세정력 등이 우수한 화장품 제조가 가능했다. 점에서 자신감을 있었다.

해성분이 전혀 없다”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유아용으로 적합하고 환경에도 좋은 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클렌징 오일’, ‘바디 오일’, ‘스킨’, ‘에센스’, ‘벨런스 애플’, ‘회복크림’ 등을 출시한 상태로 여기에 해외 수출을 위해 마스크팩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는 창업에 꿈꾸는 사업 후배들을 위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생각만 바르다. 고집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상근 대표는 “내년에는 1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벨런스는 미네랄 오일, 인공광부제 인공색소, 인공향 등 유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국서 이루지 못한 ‘프로 심판’ 꿈美서 이뤘어요”

한국인 첫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심판 김재영씨

고국에서 이루지 못한 ‘메이저’의 꿈을 위해 미국에서 꿈을 외치는 ‘한국 첫 마이너리그 심판’.

지난 주말 무등경기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광주시장배 초·중·고 야구대회 주심으로 나선 김재영(39) 심판.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이명영 심판이사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심판이다.

김동욱 전 동국대 감독의 아들인 그는 서울 언북중과 중앙고를 거쳐 대불대(현 세한대)에서 190cm 장신 투수로 활약했다.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루키팀에도 입단했지만 끝내 프로 마운드는 밟지 못했다.

2012년 대한야구협회 심판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 그의 가슴 한 곳에는 ‘프로’라는 꿈이 뜨거울 정도로 남아있었다.

김재영 심판은 “심판으로도 프로의 꿈을 이루자고 생각했는데 KBO리그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됐다. 프로 심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미국 심판 아카데미를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미국이라는 무대, 광주는 기회의 장소가 됐다.

김 심판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파견을 왔었다. 위원이 일본

KBO리그 나이 많아 퇴짜  
광주 U대회 때 도전 결심  
뉴욕 펜리그 싱글 A 쇼트 데뷔  
“메이저 무대 도전해야죠”

사람이었는데 트리플 A에서 심판까지 했던 분이다. ‘나도 너 나이 때 시작했다. 늦지 않았다. 도전을 하라’고 하셨다. 그 계기로 밀어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열정을 태우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2016년 1월 그는 마이너리그 심판학교(MILB 엠파이어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첫해는 의무관 넘쳐서 1개월의 교육 과정 끝에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지난해 다시 한번 미국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심판은 “한 달 과정을 통과한 뒤에 1주일 동안 고급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고급 과정에서는 많이 물어볼린다. 식사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한 데도 못 쉬게 한다. 이론 강의도 듣고 볼테스트를 받아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며 “영어도 중요했는데 토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외었다. 다시 면접을 봤을 때 예전



보다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욕 펜리그에 배정된 그는 싱글 A 쇼트(Short) 시즌에서 마이너리그 심판으로 데뷔를 했다. 낯선 나라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보냈던 고된 시간이지만 그는 무사히 첫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4심제로 뛰었는데 2심제로 돌아갔다. 7-8시간 운전을 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막판에는 많이 힘들었다. 첫 경기 할 때 너무 긴장을 했다”며

“처음 어필을 받았을 때도 눈앞이 깜깜했었다. 아웃-세이프 놓고 어필이 나왔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말이 나오더라”고 웃었다.

처음 마이너리그 심판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도전을 만류했다. 하지만 도전의 해를 무사히 보낸 그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 시즌 76경기를 뛰었는데 마지막 막내 주심이였다. 오후 경기였다. 너무 더워서 많이 지친 상태에서 경기가 끝났는데 첫해 잘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운 좋게 올해는 리그 올스타전도 뛰었고, 플레이오프, 챔피언십까지 끝까지 배정을 받아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인생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쇼트, 풀, 하이 시즌 3단계로 나뉜 싱글 A에서 쇼트 시즌을 보낸 그는 내년에는 풀 시즌에서 풀을 외치게 된다. 내년 시즌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는 계약 연장도 함께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김 심판은 “올 시즌 쇼트 싱글 A로 시작해서 풀 시즌에서 보내게 됐다. 매일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아직 4단계는 더 넘어야 한다”며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것은 모두의 목표이지만 찾아보면 길은 어디에든 있다. 후배들의 새로운 길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영아일시보호소-함소아한의원 ‘아기천사 사랑 협약식’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원장 강춘식)와 함소아한의원 및 함소아제약(대표 조현주)은 28일 ‘아기천사들을 위한 사랑의 협약식’을 가졌다. 함소아한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물품을 1년간 후원한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제공>

## 한국관광공사, 순천시 ‘지역관광 활성화 설명회’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태호)는 28일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여수·순천·광양·보성군 관광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사랑의 김장김치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 광주지법봉사단, 김장 봉사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윤성원) 무등봉사단 소속 법관 및 직원 38명은 29일 담양에 있는 ‘예수마을의 집’에서 김장(배추 800포기) 봉사활동을 했다. 예수마을의 집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양로원으로, 신부 1명, 수녀 8명이 정부 예산지원 없이 순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무등봉사단은 예수마을의 집에 매일 일정액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장 준비금 등을 지원했다. 2007년 5월 구성된 무등봉사단은 현재 법관 32명, 직원 84명 등 광주지법 소속 116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휘 무등봉사단장(부장판사)은 “앞으로도 소외 받는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소외계층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28일 ‘2018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김치를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광주신세계가 2000년부터 19년간 진행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최민도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장, 서구지역 자원봉사자 10명

등이 참여해 5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신애원과 영아일시보호소, 무등축약원 등 광주신세계와 결연을 맺은 복지단체와 서구지역 소외계층 가정, 지난 5월 리뉴얼 오픈을 지원했던 ‘천원식당’ 등에 전달됐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민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19년째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전갑수(광주시 배구협회장·(주)백양실업 회장)·황정란씨 장남 재형군, 양승래·이덕자씨 장녀 인선(교사)양=12월1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도전동 드레밍빌 4층 062-228-0000.  
▲양연승·김일순씨 장남 동광군, 윤석군(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최효순씨 장녀 설희양=12월2일(일) 오전 11시 광주 드레밍빌 2층 씨애플.

### 알림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나일도) 김치니눔봉사=12월5일(수) 오전 9시 광주시 남구 입암동 김치타운 010-8602-2004.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C(로고) 공모=12월7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과 광주지역 대학(원)생 등 개인 또는 팀(2인 이하) 센터 홈페이지(gjds.or.kr) 참조.  
▲사단법인 한국수사사랑총연합회 창립총회(중앙총재 이상양)=12월1일(토) 오

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3층 010-2357-000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통합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

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최달주씨 별세, 보은(장조건축사 사무소대표)씨 부친상, 발인 30일(금)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062-951-1004.  
▲김성모씨 별세, 기흥·중흥씨 부친상, 목여미·김시은씨 시부상, 발인 30일(금) 오전 11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3352.  
▲김종일씨 별세, 한울씨 부친상, 발인 12월 1일(토)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강소래씨 별세, 배인수(서창농협 전 조합장)·찬수·일수·경수·애래·영래·수남·연

래씨 모친상, 발인 1일 오전 9시 광주시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p><b>謹</b> <b>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b> <b>弔</b></p>			
<p><b>본관 3층 410호 故양옥근 님(남/62세)</b> 子/子婦 : 양수민/강도영, 수란/이한 女/婿 : 윤광순 ◇입관 : 11/30 11:00 ◇발인 : 12/01 10:5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10</p>	<p><b>신관 4층 401호 故최복배 님(남/71세)</b> 子/子婦 : 최승/백승희 女/婿 : 최창실/김성훈 ◇입관 : 11/30 13:00 ◇발인 : 12/01 07:00 ◇장지 : 고충공민선선영(화) ◇연락처 : 250-4473</p>		
<p><b>신관 4층 402호 故한연석 님(남/81세)</b> 子/子婦 : 한병수/윤순희, 한희자/최규홍, 성주/정규홍 孫 : 최병환, 인영, 정다정, 지은, 한운정, 윤희, 윤아 ◇입관 : 11/30 11:00 ◇발인 : 12/01 07:00 ◇장지 : 김항공원(화) ◇연락처 : 250-4474</p>	<p><b>신관 3층 301호 故한상태 님(남/76세)</b> 子/子婦 : 한동훈/임유승 女/婿 : 한애리/이승재 ◇입관 : 11/30 13:00 ◇발인 : 12/01 07:00 ◇장지 : 순천주암선선영(화) ◇연락처 : 250-4471</p>		
<p><b>본관 3층 412호 故이문삼 님(남/81세)</b> 子/子婦 : 이명백/강인숙, 준영/정혜은, 영/나연우 女 : 이수영 ◇입관 : 11/29 10:00 ◇발인 : 12/01 07:00 ◇장지 : 신안군중도면선영(화) ◇연락처 : 250-4412</p>	<p><b>본관 2층 9호 故전선례 님(여/89세)</b> 子/子婦 : 이영민, 김남근/이영민, 성근/인향, 현준/김형희 孫 : 이은희, 재민/조은숙, 광준/황경, 유·김경중, 창중, 민중 ◇입관 : 11/29 13:00 ◇발인 : 11/30 09:00 ◇장지 : 함평공민선(화) ◇연락처 : 250-4409</p>		
<p><b>신관 3층 302호 故김근순 님(여/83세)</b> 子 : 문현주 女/婿 : 문주인/유홍렬, 정숙, 정희/신만규 ◇입관 : 11/29 13:00 ◇발인 : 11/30 13: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7</p>	<p><b>본관 2층 7호 故임현자 님(여/56세)</b> 夫君 : 서용수 女/婿 : 서선아, 예지 ◇입관 : 11/29 11:00 ◇발인 : 11/30 10: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7</p>		
<p><b>본관 지하1층 3호 故강대용 님(남/49세)</b> 子/子婦 : 강대현, 건이 兄弟 : 강대순, 대욱 ◇입관 : 11/29 13:00 ◇발인 : 11/30 08: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3</p>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영관  
24시간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